

## 관세청, 국제통화기금(IMF)과 디지털 정부 협력 강화 ...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도약

- 5일간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과의 협력회의 통해 선진 세원관리 및 인공지능(AI)혁신 방안 공유
-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6개 분야 공동회의 ...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탈세방지·세수 증대 논의

관세청은 인공지능(AI) 협력을 위해 관세청을 찾은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과 지난 4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조세징수 혁신 및 디지털 정부(GovTech)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이번 인공지능(AI) 협력회의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전략'과 연계하여 관세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으로 추진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세징수 등 정부 재정관리 전문성과 관세청의 인공지능(AI) 기술 등 디지털 혁신모델을 결합해 개발도상국의 세수확대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돕는 인공지능(AI) 협력모델을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방문 기간 중 양 기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활용 조직 혁신 전략,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 사례, ▲가상자산 관련 탈세 등 범죄대응 방안, ▲개도국 지원 현황 및 계획,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체계 등 6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개도국에 인공지능(AI) 기술 보급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은 인공지능(AI) 기반 고위험 화물선별 시스템을 통한 탈세 차단,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적발 기법 등

관세청의 인공지능(AI) 모델에 주목하는 한편, 관세청의 개도국 대상 관세 행정 현대화 컨설팅\* 역량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 관세행정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 기준에 맞는 현대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2025년 47개국 수행

아울러 대표단은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와 서울세관 포렌식센터 등을 방문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를 이용한 첨단 판독기술과 디지털 수사역량이 어떻게 밀수 및 탈세를 차단하고 통관질서를 확립하는지 참관했다. 관세청 IT센터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실시간 전자통관 체계를 확인했으며, 관세청과 학계(KAIST·한양대)와 협력한 데이터 분석 모델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살펴보았다.

\* WCO BACUDA(바꾸다) 데이터 분석 장학 프로그램 : 관세청-세계관세기구(WCO)-한양대 공동 주관으로 운영 중인 개도국 세관직원 대상 관세행정 데이터 분석 교육연수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력은 한국의 첨단 기술 기반 관세행정이 국가 재정확보와 경제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한 의미 있는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 재정관리 전문성과 관세청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글로벌 조세정의 혁신을 선도하고, 한국형 인공지능(AI) 관세 행정 모델을 개발 도상국에 확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임주연 (042-481-3210)
		담당자	사무관	강홍익 (042-481-3215)
	관세청 인공지능혁신팀	책임자	과 장	채봉규 (042-481-3290)
		담당자	사무관	최재원 (042-481-3291)

